



경남 진주시을 강 민 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시을 국회의원 강민국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심에 감사를 표하며, 진주시민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달려온 지난 2년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총 2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중 대안반영을 포함해 11건을 본회의 통과 시켰습니다.

특히 저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간 국정감사 기초를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맞추고, 정부 정책과 기관의 문제점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시중은행·국책은행·지방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업권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리·감독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모두 진주시민들께서 제게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막중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뜻깊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상을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입법 성과,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상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정착, 공적입양체계 개선,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책은 책상 위의 문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가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지켜 온 원칙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민생과 경제, 복지와 노동, 산업과 안보를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당의 정책 방향과 입법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정치는 말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부담은 덜고, 경제의 활력은 높이며,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준엄한 가르침을 보내 주시는 부산 해운대구을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준 보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의 기쁨보다 그에 따르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과 입법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선교 의원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우리 국가와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객관적인 평가로 오늘 그간의 노력을 조금은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지만,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 결과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민생법안 실적이 가장 많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2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힘써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량으로서 오늘의 수상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평가에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27

국회의원 김 선 교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양평군)

제22대 국회 전반기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 김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지표를 통해 주어지는 상이기에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난 2년 동안 오직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법안 131건을 대표발의하고 26건을 통과시키며 최상위권의 입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가 첨단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생 회복에 매진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남은 제22대 국회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뛰라는 준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제22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지금까지의 성과를 넘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민생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는 동두천·양주·연천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성원 올림

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김승수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재선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6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연이어 활동하며 위원회 간사와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체육, 예술, 관광인들과 업계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로 K-콘텐츠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 법률이 없는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뮤지컬산업 진흥법」, 한국 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캐릭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가안정 민생법안’ 4건을 대표발의하며 연료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부실과 비리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축구협회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가 한편, K-리그 심판들의 잦은 오심과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국민께 희망이 되는 정책과 입법으로 보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대구 북구을 지역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28.

국회의원 김승수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원이 의원 소감]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산업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주신 상인만큼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운 의원 소감> 서면 축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천시 지역위원장 김운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뜻깊게 평가해 주시고,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국회와 현장에서 제도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켜온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국회 입성 후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무너져가는 필수요양을 다시 세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수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짜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를 환자와 의료진 개인의 외로운 싸움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의료진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위원회’, 과학적이고 투명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법안, 국민연금 개혁에도 책임 있게 앞장섰습니다.

단 하나도 쉬운 과제는 없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정부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정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의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길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전반기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변화가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끝까지 확보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살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정재 의원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뜻깊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6년간 사법·입법 감시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온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평가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대표·공동발의 법안의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과 소위원회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객관적인 자료와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예를 넘어, 국민의 대표로서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이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과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문제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포항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7월 26일 국회의원 김정재

「제22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김주영 의원

수 상 소 감 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대한민국과 김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김포시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 성과, 국정감사와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산업재해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쉼 없이 뛰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격려인 동시에, 앞으로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지키며, 노동이 존중받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포의 교통과 경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김포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김 주 영

김태선 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36년 전통의 입법·사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으로부터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신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애써준 보좌진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의 목소리, 소상공인의 어려움,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은 언제나 저를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담아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책임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정치일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정한 사회, 더 안전한 일터, 그리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부산 연제구 김희정 의원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믿고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연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지난 2년간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민생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3법」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상습채무자 명단 공개 및 금융정보 열람 근거 마련,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4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노리는 외국인 임대인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과 「외국인 투기방지 2법」을 대표발의하며 서민 주거 안정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택시 등 국내 거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플랫폼 호출서비스를 통한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해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항 조류충돌 예방, 도로 안전 점검체계 강화, 지하안전조사 확대를 포함한 「국민안전 3법」과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 강화, 도시개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불량 건축자재 생산·유통 실태점검 및 규격 미달 제품 시공 문제 개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처럼 빛나는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연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박균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들께서 더 좋은 정치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해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및 평가단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유권자분들께 제 정치 인생을 걸고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탄핵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가시화였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첫 번째 약속이었던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졌고, 지난 2년 동안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개혁, 특검법 제정, 사법 정상화에 진력해왔습니다.

두 번째 약속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2년 만에 가시화되어, 호남권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은 광산과 호남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반도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상습 임금체불 업주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법원보관금 운용 수익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탁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독재자들이 국가권력범죄로 축적한 불법 비자금들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지역 유권자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확대, 광주역 ~ 송정역 도심철도 지하화, AI 자율주행차 연구·부품 생산단지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도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냈습니다. 반드시 현실로 구현하여 확연히 달라지는 광산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더욱 무거운 책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격려와 당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상 소 감 문 - 박대출 의원

반갑습니다.

진주시갑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법률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진주 시민 여러분과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인 법률연맹은 감사하게도 지난 2015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제 이름을 올려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회의 재석과 상임위 활동, 법안 통과율 등을 종합해 평가받은 만큼, 의정활동의 진정성을 돌아보게 하는 상이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등원할 때의 초심을 지금도 잃지 않았다고 인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진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은 소임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상 소 감 문

박 성 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국회의원 박성훈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뜻깊고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의 시간을 평가받은 이번 수상은 오직 민생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달려온 저에게 부산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중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오직 민생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챙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애써왔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소위원회 등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매 순간 성실히 임했습니다. 힘겨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발로 뛰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실질적인 민생 법안 발의는 물론, 부산의 숙원 과제인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더욱 겸손하고 치열하게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산 북구의 기분 좋은 변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국회의원 박 성 훈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 박용갑 의원

2026년 7월 27일(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박용갑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몽항시설법」, 철도 사고예방을 위한 「철도안전법」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참전유공자 유족 등 보훈 대상자들의 권익을 살피는 입법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다원시스 전동차의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등의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하여 철도안전과 공공계약의 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았고 그 결과 정부가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열심히 국민과 지역을 위해 더욱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처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용갑 드림

법률소비자연맹 제22대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 수상대상 : 박충권 수상소감문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습니다.

박해철 의원 수상소감문

정치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성과 굳건한 실천 의지로 의정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정대상 수상을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하게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각종 회의 출석, 법안 발의 및 통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상임위 소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번 평가에는 개별 의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22대 국회 전반기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엄중한 지적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늘었지만 통과율은 낮아졌고, 본회의 재석과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과 소위 활동 등 국회의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정대상 수상의 기쁜 마음과 함께, 우리 국회의 활동이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다시금 반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정치를 ‘국민의 일상과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공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고, 한 건의 법안도 치열하게 검토하며, 쉽 없이 민생 현장을 찾는 이유도 결국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산업 대전환과 다중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불평등과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2대 국회 후반기 동안, 헌정대상 수상자라는 책임과 기대에 걸맞게 늘 국민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제22대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박홍배
의원실
26.07.28.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헌정대상에 이어 이번 전반기 평가에서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큰 보람과 책임을 느낍니다.

국회 전반기는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평등하고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감 있는 정치, 체감하는 정책'을 위해 달려온 시간의 결실이자,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위해 치열하게 뛰라는 격려로 새기겠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7.2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박희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의정 평가와 법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개 분야의 정량 지표를 바탕으로 의정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망을 촘촘히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립의전원법’이 당론으로 채택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뜻을 모아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로 뛰며 성실히 쌓아온 시간들이 모여, 오늘 뜻깊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법안 통과, 국정감사 등 12개 지표를 통해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을 스스로 검토했던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신 상의 의미를 지난 활동에 대한 격려이자,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는 엄중한 당부로 받들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갑니다. 민생 경제의 최전선인 산자중기위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입법과 꼼꼼한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국회의원 박 희 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서명옥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사함보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부족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갑 구민들의 민원 하나하나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마주한 현장의 문제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경험을 살려,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인체지방을 의약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어 음주운전처럼 약물 운전 역시 강제 측정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로서 맡은 자리마다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밤낮없이 곁에서 함께 뛰어준 보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늘 따뜻하게 믿고 성원해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제22대 국회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오늘의 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구민과 국민 여러분의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회의 출석, 입법 성과 등 엄정한 지표로 평가해 주시고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서명옥

22대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서범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출신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의 '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되어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첫 수상 이후 6년 연속 헌정대
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히 저 한 개인의 성과가 아닌, 22대 국회 전반기 동
안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울주의 내일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보냈던 의정활동
을 인정받은 평가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저는 국토교통위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성평등가족위
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 기후위기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문
제’를 찾아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신축아파트 승강기 준공 전 공사용 사용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문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부실 ▲유사명칭 지하철도 제개정 부처 간
떠넘기기 ▲프린스그룹 국내 법인 설립에도 불구한 수사기관 간 공조 부재
▲공사 처리기간 지연 ▲KTX-이음 정차 등 민생 현안 해결과 취약계층 보
호, 부조리 개혁,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나아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정 활동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대한민
국이 한 걸음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 수상을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울주군민을 비롯한 국
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소통하고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2026. 7.

국회의원 서범수

서영교 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출석, 입법활동,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국민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과 개혁 입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으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인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는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 영 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아낌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함께 의정활동을 고민하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국민 앞에 약속한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믿습니다. 국민께서 맡겨주신 권한을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에 상정된 1,426건의 모든 법안 표결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법안 표결 참여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성과라기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자 했던 결과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민생 입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아왔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 지원 확대와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에 힘썼으며,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제정에도 앞장섰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과 복지체계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정치가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지난 2년의 성과에 머물라는 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치보다 결과를 만드는 정치, 말보다 실천으로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내주신 믿음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선정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 덕분입니다.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서산시민, 태안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막중한 책무를 맡아 불철주야 노력해왔습니다.

국가 안보와 민생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국민의 일상이 지켜지고, 산업과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군 장병 처우 개선과 미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격려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으로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은 임기를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의정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수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30여년 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에 몸담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정책이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해왔습니다. 이후 국회에 들어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제22대 국회 하반기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꼭 필요한 금융정책과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새롭게 나서고자 합니다.

전반기에 이어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 안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상훈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현장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주신 전문가와 시민사회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지난 전반기 보건복지위에서 '의료쇼핑' 문제를 짚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과다·부정 의료이용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7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 상 훈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어기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해안의 1등 도시, 충청남도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제22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리 농어업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국회를 쉼 없이 오갔습니다. 농어업인과 어업인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고,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과 예산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결국 국민의 삶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가보다 그 법안이 국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가보다 그 예산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늘 현장을 답으로 삼으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일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며,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쌓인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과 입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상을 수여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수상하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 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 제22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상임공동대표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인천 계양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가슴 깊이 품어온 단 하나의 원칙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정책과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민생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정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에 이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각도로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에도 주력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가공식품 담합 의혹을 지적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불합리한 환수 관행을 바로잡는 등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입법과 제도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 사법 입법감시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수상은 지난 의정 활동 동안 ‘해결하는 정치, 책임지는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쏟아부은 땀방울과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시간을 높게 평가해주신 결과라 생각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습니다.
-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북이 ‘5극 3특 체제’의 한 축으로서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특례들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6.3 지방선거에서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 및 헌법불합치 판결로 상실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의석도 사수하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 이외에도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320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고,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롯한 88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 이 영광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든든한 신뢰로 성원을 보내주신 정읍시 · 고창군 주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6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읍 · 고창의 더 나은 미래와 대한민국 농어민의 권익 신장,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상 소 감 문 - 이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도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고, 국민들께서 정치에 거시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헌정대상」을 두 해 연속 받게 되어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부족한 의정활동을 살펴봐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평가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을 바로 세우는 일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맡기신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던 과제들을 하나씩 법으로 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반기에 총 4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중 12건(대안반영 포함)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36건을 새로 발의하고 5건을 결실로 맺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봄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산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하였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의 토대를 세우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보다 아직 심사 중인 법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실종성인 수색의 법적 근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까지,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법인지 모릅니다. 제가 제·개정을 추진한 법안들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과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문 - 이만희 의원

국회의원에게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으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36년간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입법 감시 활동을 이어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온 국내 최대·최고의 시민단체입니다.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법안 발의와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에 걸친 엄정한 잣대 앞에서 받는 이 상이기에, 그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맡은 소임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 늪아가는 소방선박처럼 크게 주목받지는 못해도 현장에서는 절실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힘이나마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노력했으며,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지법」 개정애 매달렸던 것도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과제가 더 많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번 평가는 그 결음이 헛되지만은 않았다고 다독여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번 수상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제21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에 이어 제22대 전반기 종합 헌정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의정활동 전 기간에 대해 매번 종합 평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무척 뜻깊은 일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국민을 위해 일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한결같은 믿음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곁에서 함께 뛰어준 보좌진과 선배·동료 의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이라는 영예는 곧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일하라'는 국민의 무거운 당부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랑하는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쉼 없이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올림

소 감 문 - 국회의원 이연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국회의원 이연희입니다.

시민단체이자 대표적인 입법감시 전문기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로부터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가슴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년간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소위 출석률, 법안 발의·통과 실적, 국정감사 및 예결위 활동 등 12개 분야에 걸쳐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이끈다’는 일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택시장 안정을 촉구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발생 2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며 진상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성 권리 보호는 물론, 고령화와 저출생,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매진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임에도 이러한 귀한 상을 주신 것은 청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기대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 무게만큼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국민의 삶 더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篤심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늘 따뜻하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청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더욱 성실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7.27. 국회의원 이연희

제22대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2026.07.27.(월) /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전체 국회의원 269명 중 9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6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쉼 없이 매달렸습니다. 방송3법 통과를 위해 10시간 48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서 언론 장악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AI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강국 3법’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안전 9법’을 추진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통신비 부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안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노력이 대표 발의 법안 통과율 36.59%, 상임위원회 출석률 96.94%, 법안 표결 참여율 95.79%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는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33차례 참석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에 지난 2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화려한 성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앉아 있었는지, 상임위원회에 나왔는지, 법안 표결에 참여했는지,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끝까지 들여다보았는지를 따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기본을 지켜온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평가받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뜻깊습니다.

돌이켜 보면 상을 받은 항목 하나 하나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표결에 참여하고, 법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처음부터 기대하신 몫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당연한 일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상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 안에 국회를 향한 국민의 준엄한 물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憲政)이란 결국 대단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성실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신뢰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저 이정현, 후반기에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변화를 만드는 일에 더욱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흔들림 없는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상 소 감 문 - 이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심고을’충북 충주시 국회의원 이종배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저를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신 충주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언제나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국정·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살피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은 이러한 평가를 넘어, 앞으로 더 잘하라는 국민의 격려이자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과 충주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참된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먼저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상은 지난 성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일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문화·예술·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했고, 대한민국 문화강국의 제도적 기반이 될 K-컬처 6법 완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더욱 겸허히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끊임없이 쇄신하며 더 크게 분발하겠습니다. 늘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응원과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는 광명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성실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며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 장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엄정한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6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법률전문 NGO로서, 의정활동 감시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과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과와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선 구청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겪은 문제를 국회에서 제도로 풀어내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복지와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와 돌봄 등 전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 인력 등 취약계층이 노인 일자리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가치가 떨어진 아동수당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을 개정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입법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의료공백 사태와 건강보험 재정, 연금개혁, 복지 사각지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내 16개 포럼에 참여하고, 의료·돌봄·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26회에 걸쳐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미래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대전의 몫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곁에서 밥값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장 종 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상임위·본회의 활동과 입법, 국정감사 등 정량화된 12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신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큼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히 상임위에 출석하는 한편, 다양한 농어업 단체와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등 17차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점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 발의,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산사태와 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국민께 꼭 필요한 입법으로 일상을 바꾸고자 파크골프 활성화 4법, 중동전쟁 대응 농가지원 2법, 청년 맞춤형 지원 4법, 장애인 맞춤형 지원 5법 등 총 107건의 법안(결의안 포함)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중 29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 번의 좋은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 조승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다시금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기에 더욱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선 때부터 3선 의원인 지금까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않고, 꾸준히 민생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개인 통산 아홉 번째 헌정대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4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압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국민의 일상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민생 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는 본분에 더욱 충실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주요 과제를 꼼꼼히 챙기며, 성과를 내는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조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시상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의정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더욱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와 통과,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정치란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늘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오늘의 값진 상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격려인 동시에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성실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쁨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 짊어진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조은희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조은희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보고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사회 여러분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주신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저의 의정활동 모토는 언제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치’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루는 분야와 현안은 달랐지만, 의정활동의 기준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국민께서 피해를 입고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살피고, 공공기관의 무사안일과 구조적인 불공정,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온 폐단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늘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법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한 곳을 세심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번 상을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삼아,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플러스 정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뛰며, 더 분명한 성과로 보답하는 따뜻한 이웃, 야무진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조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조지연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앞으로 더 세심하게 민생을 살피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 물질 확대, 산업재해 사전예방 촉구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강화, 수입 생수 불법유통 사각지대 개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앞으로 국회 후반기, 대한민국 실물경제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조 지 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 최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입니다.

오랜 시간 성숙한 법률문화 정착과 올바른 의정활동 평가에 헌신해 오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지난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현장 곳곳에서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온전히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총 9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무장애관광 4법」으로 취약계층의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으며,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의 토대를 든든히 다졌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평가를 넘어, 초심을 잃지 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라는 뜻으로 새기고,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늘 국민의 곁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수여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수상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헌정대상 수상소감]

"과학기술 입국과 국민 삶의 질 향상, 현장 중심의 정성 어린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입법부의 발전과 올바른 의정문화 정착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해 오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로부터 '제22대 국회 전반기 헌정대상'이라는 뜻깊고 무거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 주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의 엄정한 평가자이자 감시자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NGO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가결 성과, 국정감사 활약상, 대의 민주주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입법부의 성과를 기록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감시와 성실한 평가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견인차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헌정대상은 단순히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치하가 아니라,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민생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라"는 엄중한 채찍질이자 정책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하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 과학 및 산업발전의 기초가 될 '미래 대비 3대 법안'을 비롯한 다수의 핵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 지속적 확보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법, 연구실 안에 머물러 있던 우수한 기술 성과가 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성과 확산법,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연구창업법 등 입법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에 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복잡하고 난해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던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알뜰폰 및 이동통신사 요금제가 난립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조차 어려웠던 혼란을 바로잡고자 통신요금 체계의 단순화 투명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오히려 역전되어 더 비싸거나, 이용 패턴에 맞지 않게 설계된 불합리함을 지적해 5G와 LTE 요금제 통합 개편안 및 소비자 맞춤형 정액 요금제 도입을 적극 이끌어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저는 국민의힘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을 차례로 맡아 국정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비전을 국민께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변인직은 하루 24시간 당의 입을 자처하며 수많은 브리핑과 논평을 소화해야 하는 고되고 막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역할에 치중하다 자칫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과 상임위 본회의 활동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가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일방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입법부 내부의 파행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 속에서 여당 및 행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맞서 국회 본연의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비판,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리에 기반한 감시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단순히 국정의 발목을 잡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지적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2대 국회 전반기 헌정대상을 수여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은석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1차년도에 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치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보다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정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구 동구·군위군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최형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도약하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뜻깊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입법, 출석, 국정감사, 예결산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지표와 성과를 평가받아 받은 상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소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정책으로 삼겠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한민국과 마산합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와 선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마산합포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늘 실망시키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사 뜻대로 만사형통, 마산형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최 형 두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익산시을 국회의원 한병도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 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뜻깊은 상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22대 전반기 국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입법에 힘쓰고, 민생 회복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 왔습니다. 또한,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서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2차 종합특검법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개혁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으며, 여야 협상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과 개혁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한정애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뜻깊은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감시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외교·통일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책임 있는 인사와 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중심에 둔 외교·통일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국회물포럼 회장,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불 에너지 활성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 남은 임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 상임위 출석, 입법 활동,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받은 결과라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 전반기 동안 과학기술부총리 신설법, R&D 예타폐지법, AI기본법, AI데이터센터 특별법, SMR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며 과학기술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모두 과학기술계와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에 더 막중한 소명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 있게 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경제 입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AI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